



SCHOTT Korea Co., Ltd.

‘전라남도 · 한국광기술원 · (주)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와 적외선 기술 및 투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광학 및 특수 유리 전문 기업 쇼트(SCHOTT)가 지난 2월 19일 전라남도, 한국광기술원,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와 적외선 기술 및 투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쇼트 어드밴스드 옵틱스 사업부(SCHOTT Advanced Optics Business Segment)의 마리타 파쉬(Marita Paasch) 사장, 전라남도 박준영 도지사, 소모그룹 신준수 회장, 한국광기술원 김선호 원장 등이 참석해 적외선 광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쇼트는 적외선 광학 제품에 적용하기 위한 고품질 칼코게나이드 유리(chalcogenide glass)를 제공하고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는 양산을 위한 설비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광기술원은 적외선 기술 관련 연구개발과 장비를 지원하며 전라남도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특히 쇼트와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는 전남 담양에 약 150억 원을 투자해 적외선 제품 생산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쇼트의 마리타 파쉬 사장은 “전 세계의 고객을 위한 고품질 렌즈를 제조하는 한국 기업 소모 및 광학 분야의 선도 연구기관인 한국광기술원과 긴밀히 협업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 또한 이번 협업을 위한 전라남도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한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향후 더욱 우수한 품질의 응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소모그룹 신준수 회장은 “적외선 CCTV, 자동차 나이트 비전, 체온계, 인공위성 등의 최첨단 사업 분야에서 적외선 소재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칼코게나이드 유리의 개발 및 생산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인 쇼트와 함께 일하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 왼쪽부터 쇼트 어드밴스드 옵틱스 사업부의 마리타 파쉬(Marita Paasch) 사장, 전라남도 박준영 도지사, 소모그룹 신준수 회장, 한국광기술원 김선호 원장이 협약서를 들고 있다.

한편 쇼트의 칼코게나이드 유리는 자동차의 나이트 비전 카메라, 원격감시용 나이트 비전 장비, 설비 보전을 위한 발화 검출, 고온계 속의 비접촉 온도센서, 모션 컨트롤 시스템 등 다양한 광학 분야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소재다.

- 담당자 : 이기호 팀장
- 전화 : 02-3456-0325
- 이메일 : giho.lee@schott.com